

Spring Song

The year's at the spring, | 때는 봄

And day's at the morning | 봄은 아침

Morning's at seven | 아침은 일곱 시

The hill-side's dew-pearl'd | 언덕 위에 진주 이슬

The lark's on the wing | 종달새는 날고

The snail's on the thorn | 달팽이는 가시나무에

God's in His heaven - | 하나님은 천국에

All's right with the world. | 모든 것이 제자리에

눈물처럼 아련한 풍경이 펼쳐지는 따뜻한 봄이 왔어요.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오빠가 사준 책 두 권은 하얀 하드 커버의 금빛 글씨. <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> 윤동주 시집과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봄 노래(혹은 피파의 노래라고도 불리죠)가 실려 있던 <세계의 명시선>이었습니다.

봄에는 모든 나무 가지와 모든 작은 풀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자신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. 발 밑을 보세요. 하늘을 보세요. 많이 달라져 있죠? 그리고 느껴보세요. 행복하고 포근한 봄의 손길을...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우린 너무 바쁜 벌에 살고 있는 거지요?